

‘시작부터 배끗’...광주비엔날레 흥행 ‘더딘 발걸음’

개막 한 달 누적 관람객 15만9천명...앞선 15회 대비 흥행 절반 그쳐
유료 관람객도 코로나 때 수준...대만 파빌리온 논란 등 개막 전 흥행
“개최 기간 짧아...20-30대 ↑, SNS 바이럴 긍정적...성공 마무리 노력”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 만에 누적 관람객 15만명을 넘어섰지만 전회 흥행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선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72만명이 넘는 총관람객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관람객 증가 속도가 더딘 상황이기 때문이다.
6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개막한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너는 네 삶을 바꿀 아한다’의 누적 관람객은 지난 5일 기준 15만9천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 전시장과 파빌리온을 찾은 관람객을 합산한 수치로 추석 연휴인 지난달 24-27일에는 2만1천493명이 비엔날레를 찾았다.
하지만 역대 광주비엔날레 총관람객 규모와 비교하면 올해 관람 흐름은 다소 아쉽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역대 수익사업 현황을 보면 총관람객은 코로나19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열린 제13회는

8만6천22명(온라인 16만5천명 미포함)이었지만 제14회에 51만6천829명으로 회복했다. 특히 제15회에는 72만711명으로 늘었다. 앞 회차보다 39% (20만3천882명) 증가한 규모다.
이에 비해 올해는 전체 72일의 전시 기간 가운데 31일, 약 43%가 지난 시점에서 누적 관람객이 15만9천104명이다. 같은 기간 전회 회차의 관람객에 비하면 51% 수준에 머문다. 14회와 비교해도 아쉬운 수치다. 2023년 열린 14회 비엔날레 총관람객은 51만6천829명으로 43% 일정에는 이미 22만2천여명이 방문했다.
유료관람객 수도 또한 큰 차이를 보인다.
5일 기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유료관람객은 2만1천754명이다. 다른 회차의 43% 일정에 비교하면 14회 5만6천75명, 15회 3만849명으로 크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코로나19 여파 속 열렸던 13회(2만82명)와 비슷한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와 파빌리온을 총 2만1천493명이 관람했다. 사진은 본 전시장 제1전시실 관람객 모습. <광주비엔날레 재단 제공>

올해 비엔날레는 개막 전부터 파빌리온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겪었다.
국립대만미술관 파빌리온 명칭을 놓고 대만 측과 재단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작품 설치가 지연됐고, 재단이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승인한 뒤에는 중국관 설치팀이 철수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재단은 결국 개막을 앞둔 지난달 2일 “파빌리온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우려와 혼란을 드렸다”며 공식 사

과하고 추진 과정의 점검과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개막 직전까지 이어진 파빌리온 논란을 수습한 데 이어 이제는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하지만 현재 수치만으로 최종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오는 11월15일까지 40여일의 전시 기간이 남아 있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앞선 14회와 15회 전

시 기간은 올해 전시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날짜별로 보면 성공적인 수치다. 또 현재 전시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인 관람객 규모를 판단하기에도 이르다”며 “올해 비엔날레는 SNS에서 바이럴되면서 20-30대 사이에 관람객 수가 늘고 있다. 특히 관람객들에게 만족도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더 많은 관람객이 비엔날레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국악 선율로 전한 자연 사랑의 마음

창작국악단 도드리, 환경 음악극
‘내사랑 섬진강 덩덕콩!’ 10일 개최



사단법인 창작국악단 도드리는 오는 10일 오후 3시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자연 보호와 국악을 접목한 가족환경음악극 ‘내사랑 섬진강 덩덕콩!’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2026 전남문화재단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사)창작국악단도드리 전남지부가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문화재단, 곡성군이 후원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 음악의 친근함을 전하는 동시에 작은 실천을 통해 지구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환경 음악극인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섬진강에 살고 있는 은어·참개·쏘가리가 환경 오염으로 위기를 맞자 강도개비와 산도개비, 그리고

어린이 관객들이 힘을 모아 섬진강을 다시 살려내는 모험 이야기를 담았다.
전통 국악 관현악 연주와 한국무용, 입체적인 영상 연출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특히 단순히 보는 공연에서 벗어나 객석의 어린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쓰레기를 주워 분리수거를 돕는 ‘덩덕콩! 도깨비 환경 대작전’ 참여형 연출을 도입해 자연 보호의 실천적 메시지를 유쾌하게 전달한다.
공연에는 배우 문유경(은어·강도개비 역), 박지형(참개·산도개비 역), 오창선(이야기꾼·쏘가리 역)과 함께 무용수 김수연, 문다솜이 출연하며, 창작국악단 도드리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국악관현악 연주가 더해져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대표곡으로는 곡성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표현한 국악관현악 ‘섬진강’을 비롯해 ‘죽향풍월’, 국악가요 ‘난감하네’, 중주곡 ‘동물들의 환희’, ‘내 사랑 섬진강’, 파날레 ‘아름다운 나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신나는 국악 레퍼토리가 연주된다.
김재섭 도드리 이사장은 “이번 가족 환경 음악극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 음악의 친근함을 전하는 동시에, 작은 실천을 통해 지구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은 가족이 함께 국악의 흥겨운 장단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사단법인 창작국악단 도드리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복기자

붓 끝에서 피어난 한글의 아름다움

한국문화예술디자인협회, 9일까지 전남광주시청 1층 ‘붓끝에 핀 한글’ 회원전

(사)한국문화예술디자인협회는 한글날을 기념해 오는 9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청 1층 시민갤러리에서 ‘붓끝에 핀 한글’ 캘리그래피 회원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는 한글을 캘리그래피라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고, 회원들이 각자의 감성과 개성을 담아 표현한 작품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기념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한글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예술로 표현하는 이번 전시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시 제목인 ‘붓끝에 핀 한글’에는 한글 한 자 한 자에 마음을 담아 써 내려간 회원들의 정성과 함께, 우리의 글이 예술로 피어나는 모습을 담았다.
전시장에서는 작가마다 서로 다른 필체와 붓의 흐름, 먹과 색의 조화, 여백의 미를 활용해 표현한 다양한 캘리그래피 작품을 만나볼 수



예림 조유경
있다. 같은 한글을 소재로 하면서도 작가의 개성과 감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감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유경 (사)한국문화예술디자인협회 이사장은 “이번 전시가 회원들에게는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작품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과 캘리그래피의 매력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